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관련변수

류 상 희* · 유 안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its related variable

Ryu, Sang-Hee* · Yoo, An-Jin**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nsumer and Child,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Home Economics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to improve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this purpose reviewing literatures and empirical research were conducted.

The subjects were 661 fourteen-year-old(8th graders) enrolled in middle school in Seoul and Gyeongsang-nam-do.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 Chi-squar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Home Economics Education differed with sex of subjects. That is, girl students' perception was higher than boy students' perception.
 2.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Home Economics subject varied across parents' education level.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Home Economics Education according to existence of mother's Job.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Home Economics Education according to region. That is, the perception about the contents of eating life role was high in rural and the daily life as a consumer and resources application was high in Seoul.
 5.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Home Economics Education varied across subject distinction. That is, the perception of boy students who chose Industrial Arts · Home Economics subject was high.
-

I. 문제 제기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는 가족의 구조를 종래의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와,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여성교육의 확대에 의한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정의 일이 더 이상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남성에게도 가정생활에 관한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미래의 가정의 주인이 될 청소년에게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학교교육에서 길러줄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가정'과목의 사명이 있다¹⁾고 볼 수 있다. 즉 가정생활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기초능력을 기르는 생활교육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은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으로 요구된다.²⁾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 4차 교육과정기(1981-1987)까지는 남학생에게 가정과목을 학습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 후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고시(1987. 3)로 실업·가정과는 종래의 '기술', '가정'과목을 그대로 두고 '기술·가정'과목을 신설하여 남녀 구분없이 3과목 중 택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가정과목은 학교나 교사의 상황 등에 의하여 주로 남녀공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전국적으로 10%정도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사회적 요구의 반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될 6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되어 남녀 중학생 모두에게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가정과 교육은 그 교육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육에 부여되고 있는 요구를 종합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가정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고, 앞으로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가정교과와 내용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의 고찰

이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근자(1985), 김순애(1990)의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와 문옥현(1985)의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교과 이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들 수 있다.

김근자의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습내용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남시의 학생이 서울시의 학생보다 가정교과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가정과 학습목적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옥현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 문옥현은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을 성별,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먼저 성별, 지역별 가정과목의 인식내용 분석결과를 보면 1) 여성과목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직업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소도시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과목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는 「관계가 있다」에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여 성별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순애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목 및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을 지역별, 성별, 이수과목별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1)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는 농촌일수록, 성별로는 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의 인식이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은 농촌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과목별로는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볼 때 성, 지역, 이수과목이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성별, 지역별, 이수과목별로 비교하고자 한

다. 또한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에는 가정생활의 영향이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성, 지역, 이수과목 외에 자녀들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변수로 여겨지는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직업유무의 두 변수를 첨가하였다.

III. 연구문제와 변수의 정의

1. 연구문제

- 1)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은 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4)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5) 가정과 교육에 대한 중학교 남학생의 인식은 이수과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변수의 정의

이상의 연구문제를 구성하는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부모의 교육수준 차이는 최종 졸업한 학교급별의 차이를 의미한다.

* 모의 직업유무는 가사에만 종사하는 전업주부

와 가사 이외의 전업제, 시간제 등의 일을 하는 비전업주부를 의미한다.

* 거주지역 차이는 현재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자기집의 장소의 차이를 의미한다.

* 이수과목 차이는 현재 학교에서 이수하는 기술·가정과목과 기술과목의 차이이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이 연구의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5개 남녀공학 중학교 2학년 377명과 경남 소재의 5개 남녀공학 중학교 2학년 284명이었다. 서울지역과 경남의 농촌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1) 이 연구가 설정한 지역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2) 가정과목이 1, 2학년에서 필수선택으로, 3학년에서는 가사과목이 선택으로 되어 있는 현행의 편제상 가정과목을 가장 많이 학습하고, 가사과목을 전혀 학습하지 않은 학년이므로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조사도구

1) 조사도구의 구성

관련문헌 및 관련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구체적인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 후 예비조사를 거쳐 조사도구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

<표 1> 질문지의 문항내용, 문항수 및 문항유형

영역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유형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	1	선다형
		가정과목의 성격	1	
		가정과목의 학습내용	1	
		가정과목의 학습목적	1	
		가정과목의 중요도	1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경로	1	
		가정과목의 이수대상	1	
		가정과목과 가정생활과의 관계	1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가족생활	4	5점 척도
		식생활	5	
		의생활	3	
		주생활	5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성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1)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은 가정과목의 성격, 학습내용, 학습목적에 대하여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내용 자체 발전이 목적이었으므로 선다형으로 제시하였다. 2)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5단계 평정척도법을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작성한 각 문항을 현직 가정과 교사 3인의 검토와 지도교수의 검증은 기초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가정과 교육내용의 인식에 관한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가족생활 영역은 현대에 와서 그

(표 2) 신뢰도 분석

영역	신뢰계수
<가정과 교육내용의 인식>	
식생활	0.655
의생활	0.752
주생활	0.730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0.677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이지만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선다형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다항목적도의 신뢰도 분석에 널리 쓰여지고 있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구함으로써 알아본 가정과 교육내용의 인식에 관한 신뢰도 분석에서 가족생활 영역은 제외되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의 분석방법

질문지 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해도와 응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한 후 1992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713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712부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661(92.7%)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전체적으로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에 따른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을 위해서는

ANOVA(ONE WAY)와 CROSSTABS에 의해 얻어지는 χ^2 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연구에서는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유무, 지역, 이수과목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직업유무는 중학생들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면의 부족상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직업유무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한 것만 간략히 제시하고 표는 생략하기로 한다.

1.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첫째,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가정과목의 성격에 대한 반응은 남녀 학생 모두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목」, 「여성의 교양과목」,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목」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과목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반응은 「전전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에 남학생 23.9%, 여학생 41.7%로 나타나, 여학생이 가정과목을 인간교육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목의 학습목적에 대한 반응은 남녀 학생 모두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남 : 32.2%, 여 38.7%), 「여성의 교양과목이므로」(남 : 31.0%, 여 : 26.6%), 「계획적 생활로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해」(남 : 25.6%, 여 : 2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수준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주 중요」와 「조금 중요」에 남학생 81.7%, 여학생 81.1%로 나타나, 대부분의 남녀 중학생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경로에 대한 반응은 남녀 학생 모두 「일상생활에서 터득」, 「부모, 가족」, 「가정과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남녀 집단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반응이 「가정과목」인데, 이것은 가정과목의 이수 여부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가정과목을 배워야 할 대상에 대한 인식은 남학

〈표 3〉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

문항	반응	성별		χ^2
		남 빈도 N(%)	여 N(%)	
가정과목의 성격	여성의 교양과목	85(35.0)	81(25.0)	22.839***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배우는 과목	94(38.7)	181(55.9)	
	고등학교 입시의 한 과목	10(4.1)	20(6.2)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배우는 과목	35(14.4)	22(6.8)	
	취미를 배우는 과목	19(7.8)	20(6.2)	
가정과목의 학습내용	가정생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	28(11.5)	25(7.7)	23.016***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	53(21.8)	71(21.9)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	48(19.8)	43(13.3)	
	여성의 교양과 지식에 관련된 내용	56(23.0)	50(15.4)	
	건강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	58(23.9)	135(41.7)	
가정과목의 학습목적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11(4.5)	32(9.9)	9.423*
	여성의 교양과목이므로	75(31.0)	86(26.6)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78(32.2)	125(38.7)	
	진로와 직업준비를 위해	16(6.6)	12(3.7)	
	계획적 생활로 가정경제의 안정 위해	62(25.6)	68(21.1)	
가정과목의 중요성	아주 중요	64(26.3)	84(25.9)	5.517
	조금 중요	137(56.4)	182(56.2)	
	별로 중요하지 않다.	26(10.7)	48(14.8)	
	배울 필요가 없다.	16(6.6)	10(3.1)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습득경로	가정과목	15(6.2)	71(21.9)	29.438***
	부모, 가족	54(22.2)	72(22.2)	
	잡지, TV, 신문 등	51(21.0)	57(17.6)	
	일상생활에서 터득	117(48.1)	114(35.2)	
가정과목의 이수대상	가정과목 이외의 과목	6(2.5)	10(3.1)	43.698***
	여학생만	72(29.6)	27(8.3)	
가정과목과 가정생활과의 관계	남녀 학생 모두	171(70.4)	297(91.7)	80.383***
	밀접한 관계가 있다.	82(34.0)	227(70.1)	
	약간 관계가 있다.	116(48.1)	85(26.2)	
	별로 관계가 없다.	34(14.1)	8(2.5)	
	전혀 관계가 없다.	9(3.7)	4(1.2)	

*P<0.05 ***P<0.001

생은 「여학생만」 29.6%, 「남녀 학생 모두」 70.4%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전자에 8.3%, 후자에 91.7%로 나타나,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과목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반응은 남학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34.0%, 「약간 관계가 있다」 48.1%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전자에 70.1%, 후자에 26.2%로 나타나, P<0.0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을 부모의 교육수준 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다. 가정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배울 필요가 없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주 중요」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경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터득」, 「잡지, TV, 신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터득」, 「부모, 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째,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을 母의 직업유무에 따라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경로에 대한 반응은 「가정과목」에는 母의 직업이 있는 경우 16.8%, 없는 경우 13.1%의 비율을 보였으며, 「부모, 가족」에는 母의 직업

이 있는 경우 20.6%, 없는 경우 24.1%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母의 직업이 있는 경우는 부모, 가족보다는 가정과목에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얻고 있으며, 母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과목보다 부모, 가족으로부터 많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을 거주지역별로 보면 <표 4>와 같다. 가정과목의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은 서울이 「전전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 26.9%,

<표 4> 지역에 따른 중학생의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

문항	반응	지역	서울	농촌	χ^2
		빈도	N(%)	N(%)	
가정과목의 성격	여성의 교양과목		82(29.0)	84(29.6)	12.622*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배우는 과목		140(49.5)	135(47.5)	
	고등학교 입시의 한 과목		11(3.9)	19(6.7)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배우는 과목		22(7.8)	35(12.3)	
가정과목의 학습내용	취미를 배우는 과목		28(9.9)	11(3.9)	18.445***
	가정생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		36(12.7)	17(6.0)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		71(25.1)	53(18.7)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		48(17.0)	43(15.1)	
	여성의 교양과 지식에 관련된 내용		52(18.4)	54(19.0)	
가정과목의 학습목적	전전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		76(26.9)	117(41.2)	2.563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23(8.2)	20(7.1)	
	여성의 교양과목이므로		92(32.6)	81(28.6)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87(30.9)	104(36.7)	
	진로와 직업준비를 위해		15(5.3)	13(4.6)	
가정과목의 중요성	계획적 생활로 가정경제의 안정 위해		65(23.0)	65(23.0)	19.306***
	아주 중요		52(18.4)	96(33.8)	
	조금 중요		170(60.1)	149(52.5)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배울 필요가 없다.		45(15.9)	29(10.2)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습득경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16(5.7)	10(3.5)	11.841*
	가정과목		35(12.4)	51(18.0)	
	부모, 가족		68(24.0)	58(20.4)	
	잡지, TV, 신문 등		67(23.7)	41(14.4)	
	일상생활에서 터득		106(37.5)	125(44.0)	
가정과목의 이수대상	가정과목 이외의 과목		7(2.5)	9(0.2)	2.124
	여학생만		56(19.8)	43(15.1)	
가정과목과 가정생활과의 관계	남녀 학생 모두		227(80.2)	241(84.9)	13.914**
	밀접한 관계가 있다.		135(47.9)	174(61.5)	
	약간 관계가 있다.		110(39.0)	91(32.2)	
	별로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27(9.6)	15(5.3)	
			10(3.5)	3(1.1)	

*P<0.05 **P<0.01 ***P<0.001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 25.1%, 「여성의 교양과 지식에 관련된 내용」 18.4%로 나타났고, 농촌이 각각 41.2%, 18.7%, 19.0%로 나타나, $P < 0.001$ 수준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서울이 「아주 중요」 18.4%, 「조금 중요」 60.1%, 「별로 중요하지 않다」 15.9%의 반응을 보였고, 농촌은 각각 33.8%, 52.5%, 10.2%의 반응을 보여, 집단간의 유의차

가 인정되었다. 특히 「아주 중요」의 반응에는 서울과 농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농촌 학생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농사일로 바빠기 때문에 가사참여의 비율이 높아, 자연스럽게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습득 경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서울지역의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표 5〉 이수과목에 따른 중학생의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

문항	반응	이수과목 기술·가정 기술		χ^2		
		빈도	N(%)		빈도	N(%)
가정과목의 성격	여성의 교양과목	9	(9.6)	85	(35.0)	30.865***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배우는 과목	56	(59.6)	94	(38.7)	
	고등학교 입시의 한 과목	4	(4.3)	10	(4.1)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배우는 과목	8	(8.5)	35	(14.4)	
가정과목의 학습내용	취미를 배우는 과목	17	(18.1)	19	(7.8)	3.307
	가정생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	14	(14.9)	28	(11.5)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	20	(21.3)	53	(21.8)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	22	(23.4)	48	(19.8)	
	여성의 교양과 지식에 관련된 내용	14	(14.9)	56	(23.0)	
가정과목의 학습목적	건전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	24	(25.5)	58	(23.9)	9.681*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9	(9.6)	11	(4.5)	
	여성의 교양과목이므로	15	(16.0)	75	(31.0)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35	(37.2)	78	(32.2)	
	진로와 직업준비를 위해	8	(8.5)	16	(6.6)	
가정과목의 중요성	계획적 생활로 가정경제의 안정 위해	27	(28.7)	62	(25.6)	28.895***
	아주 중요	11	(11.7)	64	(26.3)	
	조금 중요	45	(47.9)	137	(56.4)	
	별로 중요하지 않다.	32	(34.0)	26	(10.7)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습득경로	배울 필요가 없다.	6	(6.4)	16	(6.6)	47.219***
	가정과목	33	(35.1)	15	(6.2)	
	부모, 가족	17	(18.1)	54	(22.2)	
	잡지, TV, 신문 등	15	(16.0)	51	(21.0)	
가정생활에서의 터득	일상생활에서 터득	28	(29.8)	117	(48.1)	0.027
	가정과목 이외의 과목	1	(1.1)	6	(2.5)	
	여학생만	27	(28.7)	72	(29.6)	
가정과목의 이수대상	남녀 학생 모두	67	(71.3)	171	(70.4)	17.520***
가정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5	(58.5)	82	(34.0)	
가정생활과의 관계	약간 관계가 있다.	31	(33.0)	116	(48.1)	
	별로 관계가 없다.	7	(7.4)	34	(14.1)	
	전혀 관계가 없다.	1	(1.1)	9	(3.7)	

* $P < 0.05$ *** $P < 0.001$

터득」과 「가정과목」에 농촌지역의 학생보다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잡지, TV, 신문」에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지역의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터득」에 낮은 반응을 보인 것은 농촌지역의 학생보다 입시의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가정과목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반응은 서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7.9%, 「약간 관계가 있다」 39.0%, 「별로 관계가 없다」 9.6%로 나타났고, 농촌이 각각 61.5%, 32.2%, 5.3%로 나타나,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다섯째,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을 이수과목에 따라서 보면 <표 5>와 같다. 가정과목의 성격에 대하여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목」 59.6%, 「여성교양과목」 9.6%의 반응을 보였으나,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전자에 38.7%, 후자에 35.0%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학습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가정과목의 학습목적에 대한 인식은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37.2%), 「계획적 생활로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해」(28.7%)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32.2%), 「여성의 교양과목이므로」(3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이 「아주 중요」 11.7%, 「조금 중요」 47.9%, 「별로 중요하지 않다」 34.0%의 비율을 보였으며,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이 각각 26.3%, 56.4%, 10.7%의 비율을 보여, $P < 0.001$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습득 경로에 대한 반응은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가정과목」 35.1%, 「일상생활에서 터득」 29.8%로 나타났고,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일상생활에서 터득」 48.1%, 「가정과목」 6.2%로 나타났다.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이 일상생활에서보다 가정과목에서 지식·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학생에게도 가정과목을 이수시켜 가정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가정과목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8.5%, 「별로 관계가 없다」 7.4%로 나타났고,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전자에 34.0%, 후자에 14.1%로 나타났다.

2.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은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자원활용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 가족생활 영역은 가정생활 또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두 문항이 주어졌는데, 연구의 결과 독립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모든 변수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은 「서로 돕고 사는 것」과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것」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가정일에 가족의견 고루 참고」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은 의미있는 결과로 여겨지는 것만 간략히 설명하고 표는 생략하기로 한다.

첫째,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보면 <표 6>과 같다. 중학생이 생각하는 부모의 이상적인 역할에 대한 반응은 「가정일에 가족의견 고루 참고」에 남학생 41.3%, 여학생 55.6%, 「부모가 함께 가족일에 협력」에 남학생 26.3%, 여학생 26.7%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남녀 학생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남녀 분업의 인식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 맞는 신축성 있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결정」과 「아버지-직장, 어머니-집안일」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은 「식습관 개선하여 영양 고루 섭취위해 노력」, 「영양과 건강에 관심」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여학생은 「음식의 재료, 조리방법에 관심」, 「성분, 제조년 월 일 확인」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학생이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현대에 와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건강정보를 접할 기회가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 여학생은 영양을 고루 섭취하기 위해

(표 6)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영역	항목	성별		F값
		남 M·SD	여 M(SD)	
식생활	식습관 개선, 영양고루 섭취 위해 노력	3.60(1.02)	3.17(1.07)	22.988***
	영양과 건강에 관심	3.59(1.07)	3.31(1.04)	10.402**
	음식 재료, 조리방법에 관심	3.06(1.28)	3.33(1.18)	6.840**
	성분, 제조년월일 확인	3.87(1.18)	4.06(0.98)	4.340*
의생활	의복 구입시 실용성, 디자인 고려	3.72(1.12)	3.78(0.95)	0.502
	내 체형에 맞는 옷 스스로 선택	3.71(1.22)	3.86(1.12)	2.404
	의복구입시 제품표시사항 확인	3.01(1.23)	2.97(1.14)	0.186
	의복 보관법, 세탁법	3.46(1.08)	3.89(1.01)	23.845***
	간단한 바느질	3.71(1.13)	4.55(0.73)	114.227***
주생활	가전제품의 사용법, 간단한 수리방법	4.08(0.98)	4.03(0.95)	0.395
	전기의 옥내배선, 전등 점검	3.90(1.02)	3.91(0.96)	0.006
	실내장식	3.72(1.12)	4.40(0.83)	68.182***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학용품 구입전 예산세우기	3.19(1.23)	3.71(1.18)	26.183***
	불량품 구입시 반품요구	3.65(1.25)	3.72(1.04)	0.562
	컴퓨터 조작 이용	4.16(1.03)	4.17(0.92)	0.013
	상품정보를 알고 선택	3.90(0.92)	4.20(0.83)	16.791***
	소비자 역할 알고 실천	3.25(1.02)	3.62(0.91)	20.581***

*P<0.05 **P<0.01 ***P<0.001

노력하기 보다는 감식(diet)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영양면에서 남학생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추측된다. 나영주(1985)의 연구에서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조사한 결과 「많이 고려한다」에 남학생 11.24%, 여학생 2.92%로 남학생이 영양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수형(1989)의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의 체격평가에서 약간 또는 매우 날씬해지길 원하는 여학생이 63.2%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여학생이 없도록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영양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도구와 기술을 개발해야 하겠다.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은 「의복 보관법, 세탁법 알아두는 것 필요」와 「간단한 바느질」의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P<0.001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주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은 「가전제품의 사용법과 간단한 수리방법」, 「전기의 옥내배선, 전등점검」의 문항에는 성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실내장식」에는 남학생 3.72, 여학생 4.40의 평균을 보여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정되

었다.

소비생활과 자원활용에 관한 중학생들의 인식정도는 「학용품 구입전 예산세우기」, 「불량품 구입시 반품요구」, 「상품정보를 알고 선택」의 항목에서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여,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부모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자원활용의 모든 영역에서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생활과 자원활용의 세부항목인 「불량품 구입시 반품요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경우 3.81, 중졸이하인 경우 3.58로 P<0.05 수준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상품정보 알고 선택」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경우 4.18, 중졸이하인 경우 3.99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母的 직업유무에 따라서 보면,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영역에서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표 7〉 지역에 따른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영역	항목	지역		F값
		서울 M·SD	농촌 M(SD)	
식생활	식습관 개선, 영양고루 섭취 위해 노력	3.36(1.09)	3.35(1.05)	0.029
	영양과 건강에 관심	3.33(1.09)	3.53(1.02)	5.454*
	음식 재료, 조리방법에 관심	3.12(1.28)	3.32(1.17)	3.777*
	성분, 제조년 월 일 확인	3.92(1.17)	4.05(0.96)	2.100
의생활	의복 구입시 실용성, 디자인 고려	3.88(1.02)	3.54(0.98)	16.257***
	내 체형에 맞는 옷 스스로 선택	3.89(1.21)	3.63(1.09)	6.857**
	의복구입시 제품표시사항 확인	2.93(1.17)	3.05(1.19)	1.380
	의복 보관법, 세탁법	3.51(1.08)	3.90(1.02)	19.591***
	간단한 바느질	4.12(1.07)	4.26(0.94)	2.623
주생활	가전제품의 사용법, 간단한 수리방법	4.01(1.03)	4.10(0.90)	1.277
	전기의 옥내배선, 전등 점검	3.83(1.03)	3.98(0.93)	3.248
	실내장식	4.07(1.06)	4.14(0.99)	0.728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학용품 구입전 예산세우기	3.55(1.19)	3.32(1.15)	5.542*
	불량품 구입시 반품요구	3.87(1.17)	3.50(1.07)	15.368***
	컴퓨터 조작 이용	4.19(0.96)	4.14(0.98)	0.278
	상품정보를 알고 선택	4.10(0.90)	3.91(0.87)	6.502*
	소비자 역할 알고 실천	3.36(1.05)	3.56(0.88)	6.188*

*P<0.05 **P<0.01 ***P<0.001

네째,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거주지역 별로 보면 〈표 7〉과 같다. 가족생활 또는 가족에 대한 인식은 서울과 농촌 모두에서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것」에 높은 비율을 보여,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인식정도는 서울지역이 「영양과 건강에 관심」 3.33, 「음식의 재료, 조리방법에 관심」 3.12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이 전자에 3.53, 후자에 3.32의 점수를 보여, P<0.05 수준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인식정도는 「의복구입시 실용성, 디자인 고려」와 「내 체형에 맞는 옷 스스로 선택」의 항목에는 서울지역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의복 보관법, 세탁법 알아두는 것 필요」의 항목에는 농촌지역이 높은 점수를 보여,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농촌지역의 학생이 의복의 보관, 세탁에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인 의생활 영역의 가사참여로 인한 경험의 결과로 생각된다.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영역의 교육내용 인식정도는 「학용품 구입전 예산세우기」, 「불량품 구입시

반품 요구」, 「상품정보 알고 선택」의 항목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소비자 역할 알고 실천」에는 농촌지역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다섯째,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이수과목별로 보면 〈표 8〉과 같다.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인식정도는 「성분, 제조년 월 일 확인」, 「영양과 건강에 관심」, 「식습관 개선, 영양 고루 섭취」의 항목에 있어서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기술·가정과목의 「우리들의 식생활」 단원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인식정도는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이 「의복구입시 실용성, 디자인 고려」, 「내 체형에 맞는 옷 스스로 선택」, 「의복구입시 제품표시 사항 확인」, 「의복 보관법, 세탁법」, 「간단한 바느질」의 5개 항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영역에서는 「불량품 구입시 반품 요구」, 「컴퓨터 조작, 이용」, 「소비자의 역할 알고

(표 8) 이수과목에 따른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영역	항목	이수과목 기술·가정		기술	F값
		M·SD	M(SD)	M(SD)	
식생활	식습관 개선, 영양고루 섭취 위해 노력		3.82(1.21)	3.60(1.02)	3.893*
	영양과 건강에 관심		3.94(1.07)	3.59(1.07)	7.048**
	음식 재료, 조리방법에 관심		2.99(1.27)	3.06(1.28)	0.218
	성분, 제조년 월 일 확인		4.45(0.80)	3.87(1.18)	18.904***
의생활	의복 구입시 실용성, 디자인 고려		4.07(0.92)	3.72(1.12)	7.638**
	내 체형에 맞는 옷 스스로 선택		4.39(0.96)	3.71(1.22)	23.801***
	의복구입시 제품표시사항 확인		3.83(1.40)	3.01(1.23)	27.675***
	의복 보관법, 세탁법		3.73(1.17)	3.46(1.08)	4.250*
	간단한 바느질		4.03(1.07)	3.71(1.13)	5.606*
주생활	가전제품의 사용법, 간단한 수리방법		4.31(0.82)	4.08(0.98)	3.947*
	전기의 옥내배선, 전동 점검		4.05(0.88)	3.90(1.02)	1.616
	실내장식		3.56(1.17)	3.72(1.12)	1.260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학용품 구입전 예산세우기		3.15(1.21)	3.19(1.23)	0.074
	불량품 구입시 반품요구		4.09(1.01)	3.65(1.25)	9.216**
	컴퓨터 조작 이용		4.68(0.68)	4.16(1.03)	20.415***
	상품정보를 알고 선택		3.86(1.07)	3.90(0.92)	0.091
	소비자 역할 알고 실천		3.72(1.05)	3.25(1.02)	14.213***

*P<0.05 **P<0.01 ***P<0.001

실천」의 항목에서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이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가정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고, 가정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가정교과와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6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여학생의 대부분은 가정과목을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목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여성의 교양 과목으로 잘못 인식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다. 그리고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영역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여학생의 인식정도가 높

다.

2.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과목의 중요성과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농촌지역의 학생은 가정과목을 건전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학생은 가정과목의 학습내용을 조리, 세탁, 육아 등의 단순한 기능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농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식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은 농촌지역이 높고,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영역에 대한 인식은 서울지역이 높다.

5. 중학교 남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이수과목에 따라 다르다.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보다 가

정과목을 여성 교양과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반면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정도가 기술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보다 높다. 이와 같이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의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습의 효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인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목을 여성의 교양과목으로 잘못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남학생에게는 가정과 교육이 실시되기 이전에 가정과목의 학습목적과 학습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 가정과 교육내용 중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영역에 대한 인식정도는 농촌학생들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의 청소년 소비자는 소비상황 또는 소비자 정보획득이 제한되어 있어서 포괄적인 소비자능력을 개발·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특별히 마련되어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3. 가정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과 이수하지 않는 남학생의 인식 차이에서 우리는 가정과 학습의 효과를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과서 편찬시에는 학생들의 요구, 수준, 활용도 등을 사전 조사하여 가정과 학습목적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문숙재, 가정과 교육의 사명, 가정교육학, 서울:신광출판사, 1982.
2. 윤인경 외, "중학교 남녀 학생을 위한 가정과 교육", 대한가정학회지, 25(1), 110-138, 1987.
3. 이인희·이옥임, 가정과 교수법, 서울:수학사, 1992.
4. 김광옥,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학습성과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5. 김근자,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6. 김수형, "강릉시 여자 중고등학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7. 김순애,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8. 김영주, "실업·가정교과 체제 및 직업과정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9. 나영주, "남녀 중학생의 영양 지식에 대한 관심도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0. 문옥현,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교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1. 박재옥 외,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실제와 교사의 가정 및 개인생활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18(4), 47-63, 1980.
12. 박정순,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지도방향", 대한가정학회지, 22(4), 211-212, 1984.
13. 서병숙 외, 가정관리학, 서울:동명사, 1988.
14. 신현자, "가정학습을 통한 남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5. 유희경 외, "가정학의 검토와 미래의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2), 1-49, 1975.
16. 윤인경, "가정과 교육의 발전적 탐색", 가정과 교육학회지, 창간호, 103-105, 1990.
17. 이기춘, 소비자 교육론, 서울:교문사, 1988.
18. 이홍우, 지식과 구조의 교과, 서울:교육과학사, 1991.
19. 장명부, 가정학 원론, 서울:교문사, 1981.
20. 정덕희, "한국의 가정과 교육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교대 논문집, 14, 299-341, 1982.
21. 주정숙,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활동 조사연구",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16, 449-461, 1978.
22. 주정숙 외,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효율화 방안",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20, 141-174, 1982.
23. 주정일, "가정과 교육과 가정생활", 대한가정학회지, 8(1), 230, 1970.
24. 체육회, "가정과 학습내용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25. 현기순, 가정과 교육, 서울 : 한국능력개발사, 1977.
26.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Home economics concepts : A base for curriculum development, 1989.
27. Brown, M.M., What is home economics?, Wahs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80.
28. Marjorie M. Brown, Home Economics Education, New York : Mcgraw Hill Book co., 1987.
29. Mead Cheryl(Eds), Home Economics Education : A State-By, State Report, Forecast for Home Economics, 29(9), 42, 1984.